

## 1898, 문명의 전환?<sup>\*</sup>

김 학 노<sup>\*\*</sup>

전인권은 공부를 즐기면서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중섭에 대한 형의 미술평론이 신춘문예에 당선된 무렵이었다고 생각된다. 그가 도서관에서 미술책을 여러 권 가지고 와서 감상하고 있었다. 너무나 편안하게 그림들을 슬슬 보면서 책장을 빠르게 넘기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어요?”하는 나의 물음에 “읽긴? 그냥 보는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나는 미술책도 읽어야 한다. 책이니까. 그림만 있어도... 다시 내가 물었다. “뭐가 느껴져요?” “뭐, 그냥. 그때그때 다르지 뭐. 그냥 느껴지면 느끼는 대로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지는 대로 즐기면 돼...”하면서 그는 몇 편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나에게는 그렇고 그런 ‘명화’에 불과한 그림들이 인권이 형에게는 뭔가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가는 것 같았다. 그냥 인권이 형은 그림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정취를 느껴야지 억지로 무언가를 느끼려고 애쓰면 오히려 안 된다고 말해줬다.

그 후 전인권의 글을 몇 편 읽으면서 글이 참 읽기 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내 글은 내가 다시 읽어도 굉장히 어려운데 인권이 형의 글은 술술 잘 읽힌다.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와도 별로 개의치 않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다한다. 잘 모르는 분야라고 밝히면서... 억지로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움. 이것이 전인권의 글이 내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 요인인 것 같다. 내가 그의 글에서 감동을 받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냥 지나친 부분을 그가 느낄 줄 알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느낌의 정도가 매우 강렬하다. 나는 인권이 형이 공부를 즐

---

\* 전인권·정선태·이승원, 『1898, 문명의 전환: 대한민국 기원의 시공간』(서울: 이학사, 2011)에 대한 서평.

\*\* 영남대

기면서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강한 감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898, 문명의 전환』을 읽고 참으로 전인권이 재미있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그렇게 재미있는 생각들은 그냥 공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하는 공부가 너무 즐겁고 거기에서 발견한 자신의 테마가 너무 감동적일 때 그 글을 읽는 사람도 저자의 즐거움과 감동을 조금은 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인타깝다는 느낌도 있었다. 나는 부록에 있는 ‘전인권의 유언’을 먼저 읽고 그가 쓴 1,2,3,6장을 다음으로 읽었다. 인권이 형의 거침없는 문체에서 바쁘면서도 기뻐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인권이 형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그가 원래 구상한 목차들 중 이 책에 실현되지 못한 부분들이 특히 아쉬웠다. 하지만 정선태, 이승원 두 분이 쓴 나머지 장들을 읽으면서 나의 아쉬움은 크게 줄어들었다. 인권이 형이 서둘렀던 부분들, 그래서 미진한 점들을 두 분이 대단히 훌륭하게 보충해주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1898년을 중심으로 펼쳐진 『독립신문』과 만민공동회 활동을 우리 근대정치의 기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인권의 과감한 발상을 발전시킨 것이다. ‘1898’이란 제목은 1876년 개항부터 1910년 조선의 폐망까지, 또는 1896년부터 1898년까지, 크게는 19세기 초부터 조선 폐망까지의 전환기를 지칭한다. 그 중에서 만민공동회가 일어난 1898년이 중심이다. 이 시기에 조선은 성리학적 세계에서 개화문명의 세계로, 전인권의 표현에 따르면 ‘진리의 나라’에서 ‘세속의 나라’로 ‘문명의 전환’을 겪었고 독립신문과 만민공동회가 이 문명의 전환에서 중심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전인권의 핵심 생각이다.

먼저 독립신문은 근대적 대중매체로서 한글을 사용하고 신분귀천이 없는 민중을 상대로 ‘근대적 공론장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도입’에 크게 기여하였다. 독립신문은 정치와 개혁의 주체를 양반과 정치인들이 아니라 민중이라고 인식하였고, 이 점에서 독립신문은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근대사회가 출현했음을 알리는 것이며,” “근대적 가치에 바탕을 둔 근대적 신문의 성격에 꼭 맞았다(69).” 독립신문은 지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낭독’을 통해 새로운 ‘공론장’을

형성했으며 만민공동회라는 “한반도 최초의 근대적 시민사회의 출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72). 특히 독립신문의 한글 채택은 ‘국어의 발견’이자 ‘국민의 발견’이며 ‘근대적 국가의 발견’(156)이라고 전인권은 단언한다.

독립신문보다 전인권이 더 큰 의의를 찾는 것은 만민공동회다. 첫째, 만민공동회는 말과 글을 통해 공론장을 형성한 “한반도 최초의 근대적 시민사회의 출현(56)”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협성회→독립협회→관민공동회를 통해 확대된 근대적 토론방식이 주축하게 작용하였다. 둘째, 만민공동회는 ‘의회주의’를 지향했던 한국 근대 정치의 원형(144)이다. 중추원을 개편하여 ‘상원’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선거로 선출하는 귀족원 형태의 상원 설립을 관민공동회에서 의결한 것 자체가 의의가 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왕과 만민공동회의 군·민 간에 ‘사회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김홍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셋째, 만민공동회 자체가 의회주의적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만민공동회는 한국적 의회 민주주의의 맹아이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 근대 정치의 원형이다(149).” 특히 관민공동회(1898년 10월 28일~11월 2일)와 그 결실인 ‘헌의6조’는 관리와 백성이 “함께 상의하고 결정한다는 한반도 최초의 의회적 결정 방식”을 수립하였다. 이 점에서 관민공동회는 “오늘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의회의 원형 또는 맹아였다(167; 147-148 참조).” 넷째,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가 주도한 독립협회와 달리 만민공동회는 대중들이 이끌어간 한반도 최초의 근대적 정치운동이었고 이 점에서 ‘한국적 직접민주주의’ 또는 ‘대중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원형(57)이다. 특히 19일간의 ‘장작불 집회’는 당시 ‘조선의 아크로폴리스’였으며, 이후 2002년 월드컵 축제와 미션·효순 추모 촛불시위, 2004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 등 한국의 ‘대중적 정치운동의 원형’이 되었다고 한다.

요컨대 전인권은 1898년으로 대표되는 전환기야말로 근대적 사유가 대중적으로 유포된 최초의 시기이며 한국의 근대 민주주의 정치의 원형들을 그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원을 상해임시정부가 아니라 독립신문과 만민공동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과감한 주장까지 펼친다. 전인권의 자유로운 영혼이 살아 숨 쉬는 생각들과 주장은 다소 거칠지만 매우 창의적이고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 책이 내게 주는 가장 큰 감동이다. 두 가지 문제

제기만 살펴보자.

첫째, 우리 역사에서 근대의 시작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의 문제다. 전인권이 독립신문과 만민공동회에서 근대 한국의 원형 또는 기원을 적극적으로 찾는 이유는, 일제강점기에서 우리의 근대의 기원을 찾는 시각을 배격하기 위해서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근대적인 문물과 제도 및 정치적 관념이 대중화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대적 개념과 사고 및 생활방식이 대중화된 것은 일제 때가 아니라 1896년 이후 수년간이었다고 한다(145). 이 점에서 그의 작업은 한국의 근대화가 일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력에 의해서 대단히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담고 있다. 우리의 근대화가 서구의 충격에서 비롯한 것은 맞지만, 서구의 충격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은 열렬했다”(21)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오경석·박규수·김옥균’과 ‘유길준·서재필’ 및 윤치호 등을 근대 한국의 ‘문명의 건설자들’로 설정하려는 그의 시도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승원이 집필한 이 책의 8장과 9장은 우리의 근대의 기원에 대한 전인권의 주장을 조밀하게 뒷받침해준다. 8장에서 이승원은 독립신문과 만민공동회의 글과 말을 통한 활동들이 새로운 문명의 표준으로 떠오른 근대 서양문명에 맞추어 조선인들을 개조하는 ‘근대 문명인 만들기 프로젝트(266)’라고 해석한다. 신문이라는 근대적 매체를 통해서 또 한글이라는 근대적 언어를 통해서 독립신문은 ‘문명인의 매너’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교육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생담론과 체조 교육 등을 통한 일상의 신체 훈육도 근대적 신체 개조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일상생활과 예의범절 등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던 삶의 습속들을 철저히 서구적 생활방식으로 바꾸도록 근대적 행동양식을 보급하고 훈육한 것이다. 특히 만민공동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연설과 토론은 말하기의 근대를 가져왔고 이는 문명개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도구가 되었다. 집합적 토론의 장에서 “인민들은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국가의 일이 곧 내 일이라는 생각과 미약하게만 여겼던 자신들의 존재가 무한히 확대되는 느낌을 맛보았다(262).” 또한 9장에서 이승원은 당시 수립되기 시작한 학교야말로 근대 계몽의 최 일선에 선 ‘문명인 양성소’라는 사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학생은 근대 계몽과 문명의 상징으로서, 무지몽

매한 인민들과 대조되었다. 이러한 이승원의 작업은 1898년을 근대의 기원으로 봐야 한다는 전인권의 주장을 풍부한 자료들을 동원하여 세밀하게 지지해준다.

둘째, 한국식 근대와 근대성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다. 전인권은 서구의 시각에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 자신의 역사에서 스스로의 근대를 찾기를 바란다. 그의 유언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근대와 근대성을 서구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의 문명 전환은 불충분한 것만 보이게 되어서 실제로 과거와는 다르게 살고 있는, 과거와의 전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깨기 위해서 문명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고, 문명 전환의 핵심은 대중의 출현, 참여라는 측면에서 1898년에 나타난 게 아니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 자꾸 우리의 근대화는 언제나 불충분한 근대로 보면 우리는 언제나 기원의 공간을 가질 수 없는, 잘못하면 일본식의, 일본 애들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 시켰다는 식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관점이 굉장히 필요하고 …(318쪽).

성리학적 체제로부터 상당히 다른 삶의 토대가 이미 1898년을 즈음하여 만들어졌고, 이미 그 때 과거와는 다르게 사는 문명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 전인권의 문제의식이다. 우리의 새로운 문명이 서구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 완성도가 떨어질지라도 우리 자신의 역사 속에서 파악할 때 과거와의 혁명적 단절을 담고 있는 문명의 전환이라는 것이다. “서구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서술하는 대신 우리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으며, 그때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변해왔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25)”라는 전인권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문명의 전환을 이해하자는 절실한 제안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1898년을 즈음한 근대화는 비록 서구의 근대에는 못 미칠지라도 우리의 과거와는 분명한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이승원

의 ‘근대 문명인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런 시각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의 4,5,7장을 집필한 정선태도 독립신문과 만민공동회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인권의 시각을 조밀하게 뒷받침해준다. 독립신문의 한글 사용과 관련하여, 정선태는 기득권층의 언어인 한문 대신에 전 인민을 위한 언어인 한글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인식의 근대성을 강조한다. “몇 사람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전국 인민을 위하여 만든 나라’라는 발상은 분명히 근대적인 것”이고, 또 한글 사전을 만들고 표준어를 만드는 일은 근대 국민국가가 요구하는 ‘균질적인 국민’을 생산하는 작업이었다(140-141). 정선태는 근대적 정치학습의 현장이었던 만민공동회에서 발전한 ‘의사소통의 민주화’에 특별히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이 시기에 관료와 지식인의 전유물이었던 상소와 황제의 비지와 조서까지 독립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국문’으로 번역되어 공개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는 가히 ‘의사소통의 민주화’가 그 싹을 틔운,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의미에서 만민공동회는 근대적 매체를 통하여 민중을 동원하는 새로운 정치운동의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210).” 황제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막힌 것을 뚫고 닫힌 것을 열어서 상하가 서로 통하는 ‘통혁(通革)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는 칙어를 내리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도,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칙어도 신문에 한글로 번역되어 전국에 퍼져나가서 이제 황제의 옥음은 뜻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인민 공유의 목소리’가 되었다고 한다(217).

정선태가 ‘의사소통의 민주화’라고 부른 이러한 사건의 전개는 서구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구중궁궐 속에서 왕과 고관들이 정치를 독점하던 이전의 우리 정치와 비교하면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다. 전인권이 1898년을 우리 정치사에서 대중이 출현한 것으로 보고 근대 직접민주주의의 기원으로 보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된다. 독립신문에서 정치와 개혁의 주체를 양반과 정치인들이 아니라 신분제를 철저하게 부정한 토대 위에서 민중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나, 독립신문의 한글 사용이 “모든 인민이 주인인 문명국가에는 모든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가 존재해야 한다는 근대적인 국민국가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곧 ‘국어의 발견’ 또는 ‘국민의 발견’ 나아가

‘근대적 국가의 발견’이라고 할 만큼 획기적 사건이라는 해석이다(67-69). 만민공동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대중의 직접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그의 해석도 마찬가지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또는 서구의 근대 민주주의 혁명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공간에서 직접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원형을 찾는 시도가 이상해 보이려니와 우리의 이런 역사가 갖는 근대성이 불충분하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에서 보면, 이는 과거와는 획기적으로 다른 삶의 양식이자 새로운 정치의 원형이다. 그 정도가 충분하지 못할지라도, 정치의 장이 넓어지고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 내지 원형을 이루는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인권의 문제제기는 도발적인 만큼 큰 감동을 준다. 더욱이 정선태와 이승원의 글들이 그의 문제제기를 섬세하게 지지해준다. 감동을 주는 만큼 전인권의 문제제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를 남겨놓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문제제기와 주장이 제기하는 의문점을 함께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인권의 문제제기에 대한 비판의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가 제기한 문제설정이 남긴 숙제이기도 하다. 세 가지만 논한다.

첫째, 전인권이 서구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시각과 역사에서 우리 근대의 기원을 찾고자 했으나, 과연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질문하고 싶다. 이 책의 4장에서 정선태가 보여주듯이 독립신문을 주도한 지식인들은 ‘문명개화국’에 대한 동일화 욕망이 강했고 그들이 생각했던 문명화는 곧 서구화를 의미했다. 서구화에 실패한 청나라는 부정적 타자로서 배격의 대상이었고, 서구화에 발 빠르게 성공한 일본은 긍정적 타자로서 조선이 배워야 할 모범이었다(95). 개화 지식인들은 문명화되지 못한 조선 인민대중을 교화하고 변모시킬 대상으로 내려다보았고, 이런 자세는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민족교육론’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선태는 민족 구성원에 대한 이런 부정적 시각 때문에 독립신문이 이른바 ‘민족지’들과 구별되었다고 본다(106).

이렇게 서구화 또는 서구적 근대화를 추진했던 개화 세력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것을 우리 근대의 기원으로 볼 때 우리는 또 다른 서구적 시각에 매몰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든다. 전인권은 문명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선을

전근대이자 문명 이전의 단계에 놓고 서양의 중세에 비유한다. 우리 근대의 기원을 찾으려는 그의 시도 자체가 ‘중세—근대’라는 서양의 단절적 역사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이 과연 ‘문명’의 전환인지도 의문이 들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문명의 건설자들을 수립하려는 그의 시도는 자칫 ‘서구화=근대화=문명건설=좋은 것’이라는 도식적 사고에 도달할 수도 있다. 박정희는 “김옥균과 윤치호의 후예(22)”라는 그의 언급도 결국은 박정희가 문명 건설자의 후예이고 우리 근대의 기원에서부터 시작된 서구화를 추진한 점에서 좋은 인물이라는 결론이 될 수 있다. 서구적 시각에서 벗어나고자 한 그의 노력이 중국에는 서구화를 단순히 근대화뿐만 아니라 문명화로까지 인식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다.

둘째,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 문제다. 앞서 전인권은 1898년 문명의 전환이 ‘진리의 나라’에서 ‘세속의 나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진리란 “우주와 자연, 인간과 사회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를 일원적으로,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진리의 체계를 말한다(48).” 즉 종교적 성격,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진 진리다. 그에 따르면, 근대 이전 조선은 성리학이 유일한 진리체계인 진리의 나라다. 성리학은 사회제도이자 윤리체계이며 일상적 관습의 기준이고, 또 종교체계이자 학문적 방법론이며 권력 배분의 정치학이기도 하다. 그는 진리의 나라라는 단어가 모든 문명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진리에 의한 통치의 대표적 예로 중세 교권과 세속권이 통합되어 있는 ‘신정체제’를 든다. 전인권은 최익현의 예를 들며 최익현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삶(즉 비신앙)과 죽음(즉 신앙)의 기로에서 신앙(즉 성리학의 핵심적 진리)이었다고 본다. 진리의 나라에서 진리의 인간들은 ‘우리는 문명국이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야만인’이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갖는다고 한다(33). 진리가 신앙과 같은 위상을 갖는 것이다.

조선이 과연 중세 유럽처럼 교권과 세속권이 통합된 신정체제였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인권이 진리의 나라의 특징으로 든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 실은 그가 우리 근대의 기원으로 삼는 문명개화론자들의 시각에서도 고스란히 찾아진다는 점이다. 이 점은 정선태와 이승원의 글에서 잘 나타난다. 정선태는 독립신문의 국문론(5장)에서 한글과 띄어쓰기가 문명 각국의



언어 특히 영어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라고 갈파한다. 독립신문의 한글 사용이 인민대중에게 다가가려는 의미도 있지만, “문명개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백성’들이 ‘국문’을 통해 문명세계의 언어와 지식을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인 셈이다(143)”라고 역설한다. 문명과 야만의 전쟁으로 인식된 청일전쟁에서 문명국인 일본이 승리하자 이제 더 이상 야만의 언어인 한자를 배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생각이다. 그에 따르면, 독립신문의 한글 사용은 “야만의 말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야만’을 자초하는 일과 다름없으며, ‘독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 “언어관에도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 에누리 없이 관통하고 있는 셈이다(140).” 이승원(8장)도 개화 지식인들이 시도한 근대 문명인 만들기 프로젝트도 철저하게 ‘문명과 야만’의 관점에서 추진되었다고 주장한다.

전인권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독립신문이 한글을 채택한 이유는 상하귀천을 막론하고 민중이 읽기 쉬운 신문을 만들려는 취지 이외에도, “야만의 언어로 전락한 한자를 버리고 ‘문명의 언어인 한글’을 채택해야 한다는, 청나라를 타자화하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도 한몫했다(67)”고 전인권은 말한다. 그럼에도 조선을 진리의 나라로 규정하고 서양의 중세와 비슷한 체제로 보는 것은 서양의 근대를 문명의 기준으로 삼는 사고에서 비롯하는 것 같다. 삶과 죽음에서 죽음(즉 신앙)을 선택했다고 전인권이 표현한 최익현에게도 실제 선택은 문명과 야만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때 문명은 중화, 야만은 서구를 의미한 것이 차이였을 뿐이다. 서구개화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반대이지만, 동일한 논리였다. 이를 가지고 “조선 시대에는 중세의 기독교와 유사한 진리의 이해 방식이 존재했던 것(31)”이라고 한다면, 개화론자들도 이와 같은 절대적 진리관과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서양적 근대화를 단순히 근대화로 이해하지 않고 ‘문명’의 전환으로, 나아가 문명의 ‘건설’로 보는 것은 조선을 문명(건설) 이전으로 즉 야만으로 보는 셈이다. 개화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서구)과 야만(조선)의 이분법을 전인권이 다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끝으로, 무엇을 근대의 중심 과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책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개화기 문명의 전환을 논하면서 국제정치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인권이 강조하는 문명의 전환은 조선의 국내 상황보다는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의 변화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천하질서’에 속해 있던 조선이 갑자기 서양제국들의 팽창에 의해서 도입된 근대국제질서에 ‘편입’이 된 것이다. 이런 국제질서의 변환이라는 측면은 7장(정선태)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언급되고 있다(182). 천하질서에서 만국공법의 질서로의 변환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벌어진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문명표준의 변환’이다. 바로 이 때문에 문명과 야만의 위치가 바뀌고, “몇 백 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던 조선인들의 삶의 습속이 어느 날 갑자기 투입한 ‘문명’의 ‘빛’에 감염되자 갑자기 ‘야만’의 습속으로 지탄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234).”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기준이 전도되는 현상은 국제질서에서 누가 문명의 표준이냐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의 결과일 뿐이다. 문명의 전환이 아니라 문명표준의 변환으로 이해하면, 1898년 우리가 겪은 것은 진리의 나라에서 세속의 나라로 전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진리의 나라에서 다른 또 하나의 진리의 나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진리의 기준을 가르는 국제질서의 헤게모니가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조선이 진입한 새로운 국제질서인 만국공법의 질서는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근대적 국제체제이다.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만큼 힘의 논리 이외에도 구성원(membership) 즉 자격의 논리가 작동한다. 하지만 주권을 지킬 힘이 더욱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부국강병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이렇게 보면 근대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과연 대중이 출현하고 그들이 균질적인 국민으로 형성되는 것이 근대의 특징인가? 근대국가의 특징으로 이해되는 국민국가에서 국민과 국가 중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가? ‘국민’ 건설이 우선인가, ‘국가’ 건설이 우선인가? 근대국제질서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 건설이 중점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질서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대국가에서 건설하는 국민국가가 반드시 민주적인 국민을 형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국강병을 위해 필요한 국민을 건설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승원이 9장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추구했던 근대식 교육도 국가

와 민족을 위해 복무하는 집합적 개인의 양산을 주목적으로 했으며 이 점에서 개인주의를 가장 큰 적으로 생각했다(268). 근대 전환기에서 개인적 존엄보다 민족적 존엄이 우선적 과제였고, 부국강병을 위한 실용적 학문의 교육이 중점이었던 것도 결국 국민을 위한 국민의 건설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국민의 건설이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대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고 인민대중이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준어를 만들고 교육하는 것은 분명 근대적인 현상으로, 이전과는 다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 자체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독립신문과 만민공동회를 문명의 건설자라고 할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유를 구명해야 할 터인데, 근대 ‘국민’의 건설보다 근대 ‘국가’의 건설의 실패에서 그 궁극적인 이유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 책은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하고 재미있는 문제들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대단히 감동적인 책이다. 이처럼 먼저 간 이의 뜻을 살려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미완의 책을 완성한 적이 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의회민주주의든 직접 민주주의든 대중이 정치의 무대에 주체로 등장한 풍경이 이 책에서 마치 영화 속의 장면들처럼 내게 다가온다.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다. 나도 모처럼 책을 ‘읽기’보다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